

큰빛은혜교회 가정에배지

2024. 2. 28.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송가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 네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 2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맘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 3 나 항상 주님을 훼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요한복음 13장 31~35절

다 같이

- 31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 32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 33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 나눔

서로 사랑하라

인도자

기독교가 인간에게 가르치는 가장 고귀한 사상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미 율법에서도 가르친(레 19:18) 바 있는 것이지만, 본문에서 주님께서서는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 더욱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서로 사랑할 때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정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떻게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그 은혜가 넘쳐서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능동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을 능동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능동적인 사랑은 본능적인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스럽지 아니하여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즉 이 말씀은 원수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워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욕망이 사랑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 사랑은 저절로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은 그 사랑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전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모범을 따라 서로 사랑하려면 결심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적인 결심이 있어야 능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라고 묻는 질문에 주님께서서는 '전 인류가 네 이웃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30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너무 쉽게 입으로 말하고 부르짖으면서도 구체적인 개인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개인을 괴롭히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는 구체적인 개인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심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실제적이면서도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사랑할 대상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님 자신을 죽기까지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희생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할 때에 자기 기분이 좋으면 사랑하고, 자기 기분이 나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주님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 받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처럼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여야만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십니까? 능동적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기는 커녕 헐뜯고 반목하며 질투하는 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십시오. 아무리 큰 일을 이루어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작은 일이라도 사랑으로 행하면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 많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희생하는 삶을 통해 가정과 개인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눌

다 같 이

- 1 최근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심을 느꼈던 순간을 나누어 주세요.
- 2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혹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했던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세요.

중 보 기 도

가정을 위한 기도문

다 같 이

- 1 주님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 2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도록
- 3 질병과 경기 침체, 전쟁과 자연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나라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 4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